

▶1면에서 이어짐

지난달 25일에는 관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범인을 위한 대변인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대학본부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26일 교무위원회에서 총장후보추천 규정을 통과시키고 축하 파티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노조) 한상 위원장은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6일 열릴 긴급 교무위원회가 규정을 의결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며 "이에 25일 우리 노조와 경희의료원 노조, 총동문회,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나서서 대학본부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규정 의견 수렴과 관련한 경과 보고였던 것으로 드러나 해당 논란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박 대행은 "관리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지난달 26일 열린 교무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오해가 빚어졌다"며 "교무위원회도 총장후보추천규정과 관련해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어 이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또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총주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우선 총주위라는 조직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그때까지 합법적으로 구성원들의 행정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각 부처가 법과 정관, 규정에 의거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주위가 구성되면 총주위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며, 만약 대학의 행정지원이 필요치 않다면 모르겠으나, 회의 자료, 장소 제공 및 개인정보 제공 등의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총주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대학의 행정지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대행은 총장직무대행 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저를 포함한 학교 및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 새 총장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범인도 마찬가지이며, 앞서 범인 측이 구성원 의견 수렴 기한을 짧게 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좋은 총장을 선임해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구성원들의 선의를 믿고 있다"며 "총장 선임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참여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쓰레기 분리 소홀에 시름시름 않는 캠퍼스

강래완 기자 krw97@khu.ac.kr

【서울】 최근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우리학교는 원활한 자원 재활용을 위한 최초 단계인 분리수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리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캔, 병, 폐지, 일반쓰레기, 플라스틱 등으로 구분되며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은 청운관과 행복기숙사에만 구비되어 있다. 이외 건물엔 별도로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는 일반 쓰레기통만을 구비하고 있다. 즉,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하지 않고 한 쓰레기통에 버리게끔 되어 있다.

학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미술대학 옆에 위치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각 건물에서 분류 없이 모아진 모든 쓰레기는 미술대학 옆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으로 옮겨진다. 옮겨진 쓰레기들은 작업자들이 손으로 분류한다. 이후 구청이나 수거 업체가 분류된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폐기물들을 수거해간다. 이 과정에서 분류 없이 모은 교내 모든 건물의 쓰레기를 일일이 구분해 내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는 작업자들이 손으로 분류한다.

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분류 작업을 여려 번 거치므로 처음부터 분리 배출할 때보다 사용되는 봉투의 양도 늘어난다. 분리수거장 이영근 관리소장은 "하루 동안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모두 작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며 "일이 밀려 다음 날에 이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구분 없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 문제를 더욱 키운다. 막다 난기 음식물이나 음료가 남아있는 채로 버려진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음식물이 묻은 쓰레기는 재활용 대상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카페

에서 먹고 버린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

또한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내용물을 다 버리고 난 후에 분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늘어난다. 이 소장은 "분류 과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봉지에 싸서 폐기물 처리 할 수밖에 없다"며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고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내에 별도의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동훈(경제학 2014) 씨는 "우리학교의 분리수거는 잘 안 되고 있는 편"이라며 "공간이나 예산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해서 분리수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리팀 김경현 계장은 "과거에 종류별로 분리수거함을 배치해 놓았지만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분리수거의 의미가 없어져 쓰레기통을 하나로 통일했다"라며 "다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배치한다고 해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또 다시 분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팀 측은 교내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처리제도와 더불어 학내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캠페인 등 분리수거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리팀은 "쓰레기 처리 문제는 예산적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이에 맞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관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수거장 이 소장은 "캔이나 플라스틱 컵을 한 번 밟아서 압축만 시켜서 버리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이 줄어든다"며 "음료나 음식 등 내용물을 버리는 등 사소한 실천으로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U리그 개막, 농구부 2연승…배구부 극적인 역전승

박재령 기자 kpparr@khu.ac.kr

【국제】 '2019 KUSF U-리그'에서 농구부와 배구부가 각각 승전보를 전해왔다.

지난달 20일, 우리학교 농구부는 중앙대를 상대로 한 '2019 KUSF 대학농구 U-리그' 첫 경기에서 김준환(스포츠지도학 2017)의 18득점을 앞세워 79:74로 승리했다.

1쿼터는 중앙대가 압도적이었지만 2쿼터, 210cm 센터로 이름을 알린 이사성(스포츠지도학 2018)의 투입으로 분위기를 뒤집었다. 1쿼터에만 9리바운드를 성공한 중앙대 센터 박진철은 이사성의 마크에 시달리며 2쿼터 2리바운드에 그쳤다. 3쿼터 중앙대는 빠른 속공으로 한때 역전에 성공했지만 농구부는 박찬호(스포츠지도학 2016)와 이사성을 투입해 동점을 만들었다.

시소 게임이 이어진 4쿼터, 중앙대는 한때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경기 진행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재개된 경기에서 권혁준(스포



'2019 KUSF U-리그 대학배구' 첫 경기에서 인하대를 상대로 분전했지만 패했다.

초지도학 2016)이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키며 경기는 79:74로 마무리됐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선수층이 두터워 다양한 농구를 시도해볼 생각이다"며 "속공 외에도 다채로운 농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구부는 지난달 28일 건국대를 상대로 펼친 두 번째 경기에서도 박찬호의 10득점 13리바운드, 정민혁(스포

초지도학 2017)의 16득점으로 76:65 대승을 거뒀다. 농구부는 오는 1일 연세대를 상대로 3연승 도전에 나선다.

한편 지난달 22일 '2019 KUSF 대학배구 U-리그' 첫 경기에서 우리학교 배구부는 인하대에 세트 스코어 0-3으로 패배했다.

인하대는 초반부터 우세한 흐름을 가져갔다. 첫 출전한 김우진(스포츠지도학

2019)이 분전했지만 17:25로 1세트를 인하대에 내줬다. 2세트, 구분승(스포츠지도학 2016)이 긴 랠리 끝에 득점하며 분위기를 다시 가져왔고 김우진이 재치 있게 상대 실수를 이용해 득점했지만 경기를 뒤집기는 어려웠다. 3세트에서는 인하대가 연이어 공격을 성공했고 결국 점수 차를 좁히지 못한 채 3세트마저 16:25로 내주게 됐다.

배구부 김찬호 감독은 "합이 맞지 않아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라며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니 연습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구부는 지난달 29일 한양대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21-25, 19-25, 25-23, 21-25, 14-16)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1, 2세트를 내줬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궈낸 승리였다. 알렉스(체육학 2014)의 17득점과 김우진의 25득점이 리그 첫 승을 이끌었다. 배구부는 오는 11일 흥의대 체육관에서 2연승을 노린다.

4월 첫째 주 (4.1~4.5.)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 채용행사, 기업체 리크루팅 및 사회진출 프로그램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현대백화점 현장면접 (현대백화점, 현대마트쇼핑, 현대그린부드, 현대백화점Dutyfree)	4.2(화)~4.3(수) 10:00~18:00	청운관 1층 1~5번 상담실	사전지원자에게 현해 참석가능
㈜한성 채용설명회	4.4(목) 11:00~13: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관	
【미래인재센터 평생학습 시리즈 제1탄】 방송인 되는길 - 인사·방송기자·방송인 박슬기	4.3(수) 16:15~17:30	오비스홀 151호	선착순 200명 사전신청
2019 산학기 공제대비 주요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제품들이 집중교육	4.1(월)~4.5(금) 18:10~21:40	정경대 111호 (월/수/금) 오비스홀 151호 (화/목) : 3:31(일)	신정미김일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기방법 : 사전 신청(행사 당일까지 가능),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대행업체 '신청하기' → 원료

· 신청 후 학생여부' 표기하지 않아도, 당일 현장 신청 가능

※ 협조전 밭금증 사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장 또는 미래인재센터에 방문 요청

· 지원 '면접'의 경우 밭금불가

· 기타 지원은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교내공지 및 페이스북, 단과대학 홈페이지) 참조

■ 사회진출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 (11)

· 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지원서 개설 및 지원서 작성법,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컨설팅센터	분야	장소	청운관 및 상담시간※	신청방법
문성기	외국계기업/글로벌진출	청운관 1층 상담실	상시	미래인재센터 문의
이연기	이력서 및 자소서 첨삭	오비스홀 355호	목 10:00~18:00	중합정보시스템
박언경	로스쿨/공기업/공무원	제1법학관 107-2호	화 09:00~17:00	사전신청
홍상기	직무·기업분석/면접전략	청운관 1층 5번 상담실	월 09:00~17:00	-
오신종	대기업/직무분석	오비스홀 356호	월 09:00~12:00	-
이종구	금융권/대기업	네오워너스관 330호	-	-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출석 불가 (상담 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지원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로 하는 경우 당일 2부씩 출석하여 저작(필수)

-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취인신청을 위하여 청운관 상담시간을 컨설팅센터로 주1회 마련 (위치: 청운관1층 2번 상담실)

※ 2019-1학기부터 학생 이용편의를 위하여 청운관 상담시간을 컨설팅센터로 주1회 마련 (위치: 청운관1층 2번 상담실)

■ 미래인재센터 SNS - 취업 및 사회진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팔로우하세요!

KHU 알리미 앱	엔 셀카 - PUSH 취업정보 수신 등의 ※종합정보시스템-개인정보-개인정보방-PUSH 수신 등의 체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페스북 검색창에 "khujob" 검색 → "팔로우하기"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hujob)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khujob" 검색 → "팔로우하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검색창에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검색 → "친구추가"

미래혁신원 미래인재센터 (서울C)

2019년 상반기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문제풀이 집중교육 참가자 모집안내

■ 교육 개요

-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의 80% 이상이 입사시험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 직무적성검사 대비, 방학 중 기본교육에 이어 문제풀이 특강을 통한 실전능력 배양 및 자산강화
- 블라인드 채용 학생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직무적성검사 대비 역량 극대화
※